

도서관인의

窓

<2>

“강남도서관의 한 책읽기” 운동을 마치며

글 : 이윤옥*



지금 세계는 ‘한 도시 한 책읽기’ 열풍에 들어가고 있다. ‘One City One Book’ 운동은 미국 시애틀의 한 공공도서관 사서가 발의하여 한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독서토론 및 다양한 독후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독서운동이다. 이를 계기로 시카고에서도 2001년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을 ‘One City One Book’의 선정도서로 발표하였다. 이 독서운동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서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불어 사는 도시문화를 탄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2004년 9월~10월 초 까지 맨해튼 곳곳에서는 ‘뉴욕은 책의 나라(New York is Book Country, NYIBS)’란 전시회가 열렸다. 공익단체인 NYIBC가 뉴욕타임스, 뉴욕시 교육국 등과 함께 벌인 이 행사는 단순한 책 전시회를 넘어 공공도서관, 출판사, 서점, 문화단체와 각급학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책을 매개로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는 종합문화행사이다. 우리나라도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국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2일~18일은 도서관주간, 9월은

독서의 달로 정하여 각종 독서관련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행사들은 큰 반향은 얻지 못한 채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서산시의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을 계기로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독서문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으로 서산시와 공공도서관 그리고 시민들이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을 벌여 성공적으로 지역의 지적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순천과 부산에서도 ‘한 책읽기’ 운동이 이루어졌다. 2004년 10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도 서울 시내 31개 공공도서관과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책읽는 서울’을 펼치고 있다. 이 행사는 서울의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천만 서울시민이 함께 ‘한 책읽기’가 시작된다면 지적문화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선진적인 시민의식도 고취되리라 본다. 이에 맞추어 우리도서관에서는 ‘강남도서관 한 책읽기’ 행사를 추진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전 직원의 관심 하

* 강남도서관 자료봉사과장, lightgem@hanmail.net

에 8월 초, 책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도서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One City One Book' 운동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전개하고 있는 이권우 도서평론가와 한국도서관협회의 이용훈 부장의 충고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급하게 욕심내기보다는 우리도서관 나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선정도서의 원칙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 독서수준의 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 다양한 토론거리가 내포되어 있으며
- 저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의도로 국내 저작물
- 우리나라의 생활풍속이나 가족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 공통의 관심사로 토론의 여지를 담고 있으며
- 작품성 및 문장력도 갖춘 작품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춘 책으로 심윤경씨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자료선정위원회의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선정도서는 홈페이지 홍보 및 홍보물 그리고 판내 게시판을 통한 홍보와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2004년 8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강남도서관 한 책읽기' 독서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23일 오후에는 선정도서의 작가 심윤경씨를 초청하여 작가와 독자가 함께하는 독서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참여인원은 30명이 조금 넘었으며 연령층은 20대에서 60대 후반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선정도서를 2~3회 정도 정독하고 왔으며, 심지어 5~6회를 읽었다는 이용자는 작가가 놀랄 정도로 작품 분석력 및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관심을 표현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의 배경인 1970년대 후반 서울 인왕산 아랫마을에 대한 각자의 회상과 “종로구 옥인동의 모습은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산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견해 및 “작품 속에는 과장되게 달동네로 표현되었다”라는 견해로 작품의 리얼리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작품의 시대배경인 1970년대 후반의 12.12 사태, 1980년대 5.18광주민중화 운동 등의 혼란스러웠던 우리 현대사 또 이 소설의 주제인 사랑, 특히 가족간의 사랑이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독서토론회에 이어서 도서관 성인 독서회인 '질화로독서회'에서 활동에 대한 보고 및 가입방법에 대한 안내 등의 독서회 홍보를 하였다. 도서관을 통한 지속적인 독서활동과 독서토론회 개최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독자에게는 독서수첩을 증정하였으며 작가의 사인을 받는 시간도 가졌다. '강남도서관 한 책읽기' 운동은 지역민과 사서 모두에게 도서관을 통해 지적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었고, 같은 책을 통해서도 다른 느낌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독서운동은 도서 선정기준 마련과 방법 및 사서의 독서토론 진행에 대한 고민도 하게 하였다. 또한 앞으로 '한 도서관 한 책읽기', 더 나아가 '서울의 한 책읽기'에 어떻게 접근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과제도 남겨주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강남도서관 한 책읽기' 운동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사서들과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지역주민간의 소통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큰 성과도 주었다.

이 운동의 성패는 다양한 계층의 공통 관심사 유발과, 토론이 가능한 책 선정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 유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서울의 개별 공공도서관에서 자관의 특성에 맞는 '한 책읽기'를 시도한다면 서울의 '한 도시 한 책읽기'도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